

광주시 교통영향평가 운영방식 6월 바뀐다

NEWS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특·광역시 중 최초로...위원회 구성 등 지침 제정

개최방식·시기 명확화...행정예측 가능성 높아

광주시가 특·광역시 최초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광역지자체의 주요 행정사무 중 하나인 교통영향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는 19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교통영향평가 승인·운영기관(부서)은 물론 개발사업자,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 등이 지침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평가대행기관, 교통기술사협회,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이번 지침안을 마련했다.

광주시가 제정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침'은 제정 목적,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운영, 간사 및 서기, 위원 공개, 참여 수단, 운영 세칙 등이 포함됐다.

특히 매월 특정일을 지정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던 위원회 개최 방식을 변경해 정기회의, 소위원회, 서면심의 등으로 세분화하고, 명확한 개최 시기와 요건 등을 마련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신

속·공정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위원회를 대표하는 총괄위원장을 선임해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를 주관하는 심의위원장은 기존과 같이 심의 때 호선으로 선임하는 등 위원장의 기능과 역할을 이원화했다.

보고서 접수 이후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보완시간이 짧아 평가대행기관과 개발사업자가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최대한 반영해 사전검토 보완 보고서 제출시기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광주시는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과 평가대행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대행자가 직접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심의위원 질의에 답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영선 통합광항교통국장은 "신규 지침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제정한 지침 시행으로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자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농기원, 항균 양치액 개발 청태전 추출물 구취 효과 탁월

전남농업기술원은 청태전 추출물을 활용해 항균 효과가 뛰어난 양치액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청태전은 전남도 장흥에서 주로 생산되는 전동차로, 2018년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되며 그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연구는 청태전이 구강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한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 결과, 청태전 추출물을 함유한 양치액을 사용한 후 구강 내 유해균이 97.6% 감소했으며, 특히 충치 유발균인 류탄스균은 96.21%, 치주 질환의 원인균인 진지발리스균은 99.9% 감소하는 뛰어난 항균 효과를 보였다.

또한 구취의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황화합물이 평균 9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양치액 개발에는 전남농업기술원이 특허 출원한 기술이 적용됐으며, 이 기술은 습식 분쇄 방식을 활용해 대량생산이 가능하면서도 청태전의 유효 성분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산성과 균일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향산과 효과가 뛰어난 분쇄형 청태전을 양치액의 핵심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1일 도청 윤선도홀에서 주요 내빈들과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 개관

300만원 이상 기부자 중 등재희망자 명패...나눔 확산

전남도는 11일 도청 윤선도홀에서 나눔의 가치를 기억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다.

제막식은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기부자, 호남 향우회장단,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도공사·출연기관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해 명예의 전당 제막, 고액 기부자 헌액식 등이 진행됐다.

고향사랑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귀한 뜻을 영구히 간직하기 위해 조성된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에는 300만원 이상 기부자 중 등재를

희망하는 기부자의 성함이 새겨진 명패가 설치됐다. 도청 누리집에는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의 온라인 명예의 전당도 운영 중이다.

양광용 광주전남시도민회장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고향 발전에 더욱 힘이 되도록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적극 동참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전국 기부자분들의 아낌없는 고향 사랑으로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명예의 전당을 통해 기부자들의 소중한 뜻을 영구히 기록하고, 명

예를 드높이면서 나눔의 가치를 선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체험형 답례품 개발사업인 '고향마을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형 세탁물 처리가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 공동 빨래방' 운영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농촌혁신 아이디어 사업 도, 3개 선정 '전국 최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사업에 3개 업체가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모사업인 '농촌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사업'은 서울특별시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넥스트로컬) 수료자 중 농촌지역에 창업한 사업자에게 후속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지역 농산물·문화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선도 모델로 티즌(나주시), 쉼(여수시), 쉼(해남군)이 선정됐다.

사업화자금은 재료와 기계·장비 구입, 시설 리모델링, 브랜드 및 마케팅 등 각 업체당 1억원을 지원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 대표 농산물을 활용해 농촌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 지원사업을 통해 농식품산업 육성,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 두달 1326억 소비

1~2월 사용액,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보다 42% 급증

광주시가 1월에 이어 2월까지 연장 추진한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이 소비활동을 이끌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2월 특별할인기간 광주상생카드 발행규모가 약 1820억원(1월 1006억6000만원, 2월 813억1000만원), 사용액은 1326억원(1월 672억원, 2월 65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설 명절이 있는 1월 발행액 1006억6000만원은 지난해 12월(413억3000만원, 7% 할인)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발행규모와 함께 사용액도 크게 늘었다. 올해 광주상생카드 사용액은 1월 672억원, 2월 65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 사용액 467억4600만원보다 42% 급증했다. 이 같은 사용액은 연매출 30억 원 초과업체를 가맹점에서 제한한 지난 2023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광주시는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1월에는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2월에는 광주시 단독으로 예산을 투입해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을 시행했다.

시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광주상생카드'가 시민이 호응하고 선호하는 정책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는 국비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국비 반영 및 국비 지원율이 상향 조정된다면 광주상생카드의 지속성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 시행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만큼 국비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여수에 미국 대형 국제크루즈 입항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12일 2861명이 탑승한 대형 국제크루즈선 '노르웨이안 스카이(Norwegian Sky)'호가 여수 국제크루즈항에 입항한다고 11일 밝혔다.

미국 노르웨이안 크루즈 라인(NCL) 크루즈 선사의 '노르웨이안 스카이호'는 7만7000여 규모로 2001명의 구미주 외 국인 관광객과 860명의 승무원이 탑승했다. 관광객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여수와 순천, 광양 일대에서 관광을 즐기고 돌아간다.

전남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 여수시는 환영·환송 공연

을 개최하고,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부스와 여수 방풍갑 등 기념품 판매부스를 운영한다.

하선한 관광객은 단체별로 오토도, 보성 녹차밭, 광양 대화축제장, 선암사 등 10여 곳의 관광지를 투어하고, 400여명의 관광객은 여수 일원을 순환하는 셔틀부스를 통해 개별 관광을 즐길 예정이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국제크루즈 유치를 위해 국제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선사 마케팅 대상 팸투어 추진 등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더욱 특별하고 품격 있게, 잊지 못할 순간으로 -

HOTEL 아트하임

VIP CLUB 무기명회원 모집

상담문의 062.415.7330

	Vvip 1천만 (3년)	Vip 4백만 (1년)
혜택		
숙박	연40박 (한시적), 추가 숙박시 주중 30% 주말 20%	
조식	숙박시 조식 2인 무료(연 36매) 추가 증정	
사우나	무료 사용	
피트니스	무료 사용	
커피숍	커피 50% 할인, 기타음료 20% 할인	
골프대회	그린피 무료, 시상식, 연 1회	
컨퍼런스룸	연 10회, 1회 타임 3시간 무료 사용	
연회장	10% 할인	
웰니스프로그램	전문의 초청 건강세미나 연 2회	
광남일보	기업탐방 및 오피니언 리더 특집기사 연 2회 전문 이미지 광고 광남아카데미 초청 강연 연 10회 (석식제공, 사전예약)	
광주버스 방송	광주시내버스 내부 모니터(버스 1대당 모니터 2대) 20대 12개월 / 50대 4개월 / 100대 2개월	
	3년 3회 제공 (4,800만원 상당)	1년 1회 제공 (1,600만원 상당)
월간지전라도인	3년 무료구독	1년 무료구독

(주) 호텔아트하임 멤버십 클럽은 지역정문지 "광남일보" 종합광고대행사 "에드하임"이 함께합니다.

★ 대면회장(150명) / 소면회장(30명) /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운영
(주) 호텔아트하임 멤버십 클럽은 지역정문지 "광남일보"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메리몬의 062)236-5881